특집논문

유정월 |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홍인숙 | 식민지 시대 열녀 재현의 정치학

: 총독부 기관지『경학원잡지』'지방보고'란의 열녀 기사를 중심으로

노지승 | 1970년대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혹은 이주, 성노동, 저항의 여성 생애사

김소륜 |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고찰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유정월*

차례

1. 서론
2. 설화의 스토리텔링
3. 돌형상의 도상성과 배치
4. 돌문화공원에서 실현된 신화와 자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제주 돌문화공원의 1코스인 ‘신화의 정원’을 대상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이를 구현하는 돌형상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돌문화공원을 구성하는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돌문화공원의 구성요소를 이야기와 돌형상, 즉 언어와 자연으로 분절한 후, 각각의 콘텍스트를 살펴본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콘텍스트는 ‘설문대할망’의 다양한 설화 유형이며, 돌형상의 콘텍스트는 제주 탐라목석원이다. 이들을 살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돌문화공원의 ‘신화의 정원’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는 없었는지 그 대안적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설문대할망’ 설화 유형을 보면, 이 이야기는 존재 유형, 행위 유형(창조적 행위 유형과 비극적 행위 유형)으로 나뉘며, 신화적, 전설적, 민담적 성격을 두루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돌문화공원에서는 비극적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신화의 정원’을 스토리텔링 한다. 돌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문화공원의 돌형상은 탐라목석원에 있던 것들을 전승하고 있는데, 탐라목석원에서는 돌형상을 통해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일상성이나 구체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결과 돌문화공원에서 언어와 돌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환된 '설문대할망'은 일상의 창조성이 탈각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이다.

모성에 대한 감응은 이곳에 부여된 장소의 정신이기도 하고, 관람객들이 인지하는 장소감이기도 하다. 돌문화공원에서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은 모성성을 매개로 일치한다. 그리고 본고는 바로 그 점이 돌문화공원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허구로는 제주만의 지역성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돌문화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설문대할망의 풍부하면서도 다면적 면모를 구현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제주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신화, 돌형상, 탐라목석원, 모성성, 도상성

1. 서론

한 장소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장소감(sense of place)'이나 '장소의 정신(sense of spirit)'이라는 말로 설명가능하다. 장소감은 인간이 어떤 물리적 환경에 휩싸이면서 느끼게 되는 개인적 감각이다. 장소의 정신은 오랜 시간을 거쳐 그 장소에 부여된 것으로 장소감에 비해 집단적이며 문화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장소의 정신을 개인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때 이것은 다시 새로운 장소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러한 개인적 경험의 반복은 새로운 장소의 정신을 형성할 수 있다.[1)]

1) 황용섭, 「사건과 이미지에 의한 전일적 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72-75쪽.

어떤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은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야기는 집단적 혹은 문화적 의도나 무의식에 의해 장소에 부여됨으로써 개인에게 지각된다. 이야기는 개인이 어떤 장소감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장소의 정신을 부여하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본고는 제주돌문화공원의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설문대할망'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돌문화공원은 돌을 주제로 조성된 공원으로, 광대한 부지에 제주 특유의 돌문화를 집대성한 관 • 민 합작품이다. 공원 부지 100만 평 중 70%는 돌 • 나무 • 덩굴이 어우러져 있는 곶자왈 지대로, 늪서리 • 큰지그리 • 작은지그리 • 바농 오름이 펼쳐져 있다. 이 공원은 이러한 생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대원칙을 토대로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이 공원은 세 가지 코스[2]로 되어 있는데 모두 돌아보는 데 3~4시간 정도 걸린다. 이곳은 2006년 개원 당시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문화 생태 관광자원 평가에서 전국우수사례 A 등급을 받았다. 돌문화공원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며, "좋은 곳", "멋진 곳", "환상적인 곳"으로 기억된다.[3] 돌문화공원은 공식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신화의 섬", "신들의 고향"이라 불린다. 제주도에는 일반신본풀이만 하더라도 12개가 있고, 그 외 마을마다 있는 당신본풀이,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조상신본풀이가 있다. 그러나 이 공원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것은 본풀이로 전승되는 신격이 아닌 '설문대할망'이다.[4] '설문대할망'에는 다양한 이야기

2) 1코스는 신화의 정원, 2코스는 돌문화전시관 3코스는 돌한마을이다.

3) 버나드 웨버, New 7 Wonders 재단이사장은 이곳을 방문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이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적입니다."라고 하였다.

4) 제주도에서 제주 신화를 활용한 공원이나 거리로 제주돌문화공원 외 삼성혈문화의 거리, 신화의 거리, 탐라신화공원, 설문대할망테마공원,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선, 「제주도 신화의 장소성과 경관의 변화」, 『로컬리티 인

유형이 있다. 돌을 통해 제주의 제주다움을 표현하려는 돌문화공원의 기획과 '설문대할망'은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 것일까?

돌문화공원은 이야기와 돌형상이 함께 있는 곳이다. 특히 그 첫 번째 코스인 '신화의 정원'에서는, 다양하고 무수한 돌형상을 연계하기 위해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중심 테마로 활용한다. 이야기는 돌형상을 통해 이미지화 되고, 관람객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전시된 돌형상을 해석한다. 돌문화공원은 공간과 신화, 사물과 언어, 구조물과 이야기가 엉켜있는 곳이다. 본 연구는 돌문화공원 중 '신화의 정원'을 중심으로 이야기와 돌형상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대할망'은 구전된 이야기로 여러 유형과 각편을 가지며 오랜 시간 제주에서 전승되었다. 돌문화공원에서는 제주에서 경합하던 관련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장소의 정신을 부여한 것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오랜 시간 어떤 모습으로 축적되었는가를 알아야 돌문화공원의 선택이 어떤 지향을 가지는가 알 수 있다. 하나의 장소를 아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일[5]이 될 수밖에 없다. 공간은 공간만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공간은 시간의 교차를 통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돌문화공원의 이야기 축인 '설문대할망' 설화 전승에만 해당되는 않는다. '신화의 정원'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돌형상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다수 돌형상은 탐라목석원에서 옮겨졌다. 목석원은 돌문화공원이 개장하기 전에는 제주도의 핵심 관광 코스였던 곳이다. 이곳은 돌형상(그리고 나무 형상)을 이야기와 함께 전시한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돌문화공원의 돌형상이 어떤 시간적 배경을 가졌는가 알기 위해 목석원과 그곳의 돌형상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문학』 14,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237쪽. 이 가운데에서도 제주돌문화공원은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향토성・예술성을 극대화한 성공적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심승희・구동회 역, 대윤, 2007, 293쪽.

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 설화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목석원의 돌형상들을 재배치한 곳이다. 돌문화공원의 이야기 선택과 돌형상 배치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과정이기도 하다. '스토리텔링'은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뉴 미디어 뿐 아니라 테마공원과 같은 공간을 매개로 구현될 수도 있다. 공간에도 스토리를 전달하는 행위소가 있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특수한 방식이 있는 것이다.[6]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스토리 저장고에서 스토리를 선택하지만 이것들을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하거나 재창조한다. 본 연구에서 돌형상과 이야기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설문대할망'이 돌문화공원의 돌형상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내며, 돌형상을 통해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어떤 변형이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본고는 돌문화공원에서 돌형상의 도상성과 배치를 통해 '설문대할망'을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을 고구함으로써 설문대할망의 소환이, 장소에 대한 어떤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을 구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7]

---

6) 특히 이를 공간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지선,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체계」, 학술발표자료, 한국프랑스학회, 2007, 179쪽. 공간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안승범 • 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기획 연구」, 『인문콘텐츠』 17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279-303쪽.

7) 설문대할망에 대한 대표적 논의는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이다. 조현설은 설문대할망의 상위 유형인 마고할미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는데, 마고할미에 관한 150편의 구전자료와 문헌자료를 정리하고 유형화하였으며 그 다면적 형상과 신화적 정체성을 창조여신, 실패자, 조력자, 악신, 당신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후술하겠지만, 그는 설문대할망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도 주목할만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11-140쪽.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텔링되는가에 대해서는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9, 229-254쪽 참조. 문화콘텐츠로서 설문대할망 설화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30권, 온지학회, 2012, 7-45쪽 참조. 제주 돌문화공원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창식, 「설문대할망 관련 전승물의 가치와 활용」, 『온지논총』 37권, 온지학회, 2013, 65-98쪽 참조. 이들 논문은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활용이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본고는 돌문화공원의 가능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현재 돌문화공원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문화지리학의 관점은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장소를 물리적 실체가 아닌 상징적 공간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내용은 '장소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본질적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곳으로 장소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고는 장소를 경계 지어진 곳으로, 단수형이고 고정되며 그 정체성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가정하는 시각[8]을 지양한다. 이를 위해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돌문화공원에 대한 감각이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둘 것이다. 본고는 장소가 만들어내는 감각을, 장소 너머를 통해 고려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포함한다.

2. 설화의 스토리텔링

2.1. '설문대할망' 설화의 유형

한반도 전역에는 지형을 형성한 거인여성인물의 이야기가 있다. 그 거인은 대표적으로 "마고할미"라 불리지만 지역마다 그 이름은 다르다. 경기지역의 노고할미, 서해안지역의 갱구할미 혹은 개양할미, 황해도 지역의 황애장수할미, 강원도 지역의 서구할미, 경상도 지역의 안가닥할무이 그리고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9]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전승된다.[10]

숙고하고자 한다.

8)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15, 44-45쪽.

9) 현승환,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 『영주어문학회지』 24집, 영주어문학회, 2012, 103쪽.

10) 조현설은 이를 1) 탐라의 지형 형성을 이야기하는 창조형, 2) 다리놓기에 실패하거나 물장오리에 빠져죽은 창조실패형, 3) 죽음이나 죽음에 준하는 변화를 통해 다른 존재로 변형되는 변성형으로 나눈다. 조현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140-173쪽. 이성준은 유형 분류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신화, 전설, 민담적 요소를 찾아내 자료들을 분류하였다.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

①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게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11]

②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는 많은 기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이 있다. 이 바위는 설명두 할망이 길쌈을 할 때에 접시불(또는 솔불)을 켰던 등잔이라 한다. 처음은 위에 다시 바위를 올려놓지 않았는데,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얕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올려놓아 등잔을 높인 것이다. 등잔으로 썼다 해서 이 바위를 등경돌이라 한다.[12]

③ 애월면 곽지리에 흡사 솥덕 (돌 따위로 솥전이 걸리도록 놓는 것) 모양으로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선문대 할망이 솥을 앉혀 밥을 해 먹었던 곳이라 한다. 할망의 밥을 해 먹을 때, 앉은 채로 애월리의 물을 떠 넣었다 한다.[13]

④ 설문대할망 시절에 한번은 할망이 수수범벅을 먹고 설사를 시작했는데 설사가 제주의 360개 오름이 되었다.[14]

⑤ 본래 성산리 앞바다에 있는 소섬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옛날 설명두 할망이 한쪽 발은 성산면 오조리의 식산봉에 대고 다른 발은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쌌다. 그 오줌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

문학보』 10호, 제주대, 1989, 53-78쪽. 문영미는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10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9, 1-90쪽.

11)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문고, 1996, 23쪽.
12) 위의 책, 24쪽.
13) 위의 책, 26쪽.
14) 이성준, 앞의 논문, 64쪽.

었던지 육지가 패어지며 오줌이 장강수가 되어 흘러 나갔고, 육지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이다. 그때 흘러 나간 오줌이 지금의 성산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줌 줄기의 힘이 하도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서, 지금 고래와 물개 따위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때 세차게 오줌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다.15)

⑥ 하루는 배가 고픈 설문대 하르방이 할망에게 낚시를 가자고 하였다. 하르방은 섭지코지에 도달해 바다로 들어가 가운데 다리를 길게 뻗어 바다를 휘휘 젓기 시작하였다. 이에 놀란 물고기들이 반대쪽 바다로 도망을 치는데 그곳에 할망이 가랑이를 넓게 벌리고 서서 하문으로 물고기를 전부 빨아들였다.16)

⑦ 할망은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 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소가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읍 서홍리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풍덩 빠져 죽어버렸다.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정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17)

⑧ (설문대할망이) 아들 오백 형제를 낳고 그 많은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큰 솥에 죽을 끓이다가 그만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 자식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산중에서 죽어버리니 그것이 현재 제주도 명승의 하나인 영실기암의 오백장군이다. 등산할 때 이 오백장군 봉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할망이 성

15) 현용준, 앞의 책, 24-25쪽.
16) 이성준, 앞의 논문, 71쪽.
17) 현용준, 앞의 책, 23쪽.

을 내서 구름과 안개를 끼게 한다.[18]

먼저, 설문대할망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녀가 상태 주체로 나타나는 각편이 있다. 설문대할망이 키가 크다거나 몸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①과 같은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이 유형은 '-이다'로 문형 요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눕는다', '다리를 걸친다' 등) 이런 행위들은 할머니의 큰 키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다. 설문대할망이 상태 주체로 기능하는 이야기는 '존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설문대할망이 어떤 행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행위 유형' 이야기도 다수 있다. (행위는 세부적으로 타동사적 행위와 자동사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설문대할망은 길쌈을 하고, 등불을 켜고(②), 밥을 하고(③), 배설을 한다.(④, ⑤). 이들 행위 유형은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적 행위들이다. 이 유형에서는 키가 크다는 상태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행위는 변형을 일으키며 그 결과물로 등경돌, 바위, 오름, 소섬 등이 생성된다. 이는 '창조적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빠져 죽다'(⑦, ⑧)와 같은, '자동사적 행위'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다.[19] 할망의 죽음이 드러나는 이러한 이야기는 '비극적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도 물장오리나 영실기암 같은 지형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물은 할망 행위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다. 물장오리가 할망의 창조물인가 여부는 불분명하다. 영실기암은 설문대할망이 아니라, 오백장군과 직접 관련을 가지

18)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19) 이러한 경우에도 '죽을 쑤다'와 같은 타동사적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빨래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행위와 죽을 쑤는 행위는 다르다. 할망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백장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오백장군이 죽을 먹는다는 행위의 보조적 역할을 하며, 할망은 조력자로서 기능한다.

는 지형물이다. 그런가하면 행위는 있지만 행위의 결과가 지형물과 관련되지 않는 ⑥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이는 '유희적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20]

'설문대할망' 전승을 보자면, 존재 유형과 행위 유형이 비대칭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존재 유형보다 행위 유형이 더 빈번하게 발견된다. 또한 행위 유형 가운데에서도 창조적 행위 유형이 비극적 행위 유형보다 많다.[21] '설문대할망' 가운데 가장 다양하고 가장 자주 발견되는 유형은 창조적 행위 유형으로, 설문대할망이 등불을 켜고 밥을 하고 배설을 하는 일상의 행위를 통해 자연을 창조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설문대할망은 일상이 창조인 인물이다.[22]

창조적 행위 유형을 참조하면, 존재 유형에 등장하는 거대한 몸은 곧 창조하는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대한 몸은 거대한 창조를 의미한다. 존재 유형과 창조적 행위 유형이 각각 상태와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창조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라면, 이 두 가지 유형은 신화적 성격을 가

---

20) 기존논의에서는 설문대할망의 일상성, 비극성, 희극성이 후대적 변이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권태효는 여성거인설화의 변이방향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하였는데, 1) 창조신에서 희화화된 신격으로 2) 숭배의 대상에서 징치의 대상으로 3)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4) 여성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5) 비현실적 형상화에서 현실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이되어 갔다는 것이다.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0, 223-260쪽. 본고는 신성성과 일상성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논의를 지양한다. 설문대할망이 여신으로서 특수성을 가진다면, 상이한 두 자질을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21) 이런 점에서 설문대할망은 본래 창조여신이었다고 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재확인할 수 있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144쪽.

22) 설문대할망의 행위가 일상적이며, 이를 통해 할망의 신적 위상이 격하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여성의 일상이 바로 설문대할망의 행위인 것을 보니 앞의 거인신의 면모보다는 무척 왜소한 느낌"이라는 것이다.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반교어문』 38, 반교어문학회, 2014, 315쪽.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상에서 여성 노동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부정 혹은 폄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진다고 할 수 있다.[23] 그런가하면 비극적 행위 유형은 전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희적 행위 유형은 민담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창조적 행위 유형 역시 지형지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전설로 규정될 수 있다. 유희적 행위 유형은 신화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는데, 거대한 성기는 풍부한 창조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4]

유형에 따라 설문대할망과 지형물이 맺는 관계도 다르다. 창조적 행위 유형에서는 할망이 지형물을 창조한다. 이때 할망은 지형물의 원인으로, 지표로 기능한다. 신화적 성격을 가지는 이야기들에서 거대한 여신은 거대한 창조물의 도상이 되기도 하다. 이러한 지표와 도상의 반복적 의미작용은 설문대할망을 자연의 상징으로 보도록 한다. 설문대할망과 그가 창조한 세계는 지표적이며, 도상적이며, 상징적 관계를 가진다. '설문대할망'이 신화적, 전설적, 민담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나 그녀와 지형물의 관계를 다의적 기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설문대할망'의 의미작용이 유동적이며 다차원적임을 보여준다.

2.2.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 설화의 재구성

'신화의 정원'에서 '설문대할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돌문화공원의 동선은 이곳을 가장 먼저, 가장 기본으로 관람하도록 짜여 있다. 물장오리를 상징한 연못, 전설의 통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 하늘연못, 두상석, 영실,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 오백장군갤러리, 오백장군군상,

---

23) 권태효는 "거인설화의 1단계 창조작업인 천지분리나 천체현상의 조정, 자연현상의 유래 다음으로 나타나는 거인의 2단계 창조행위는 이 세상의 땅덩어리를 생성시키고 산천을 형성하며, 어느 특정 지역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작업"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설문대할망은 2단계 창조행위를 하는 신화의 주인공, 창조의 여신이다.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40쪽(조현설, 앞의 논문, 146쪽, 재인용)

24) 조현설,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사, 2006, 148-159쪽.

오백장군 상징탑, 죽솥을 상징한 연못, 어머니의 방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코너의 한 편에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기록한 표지판을 전시되어 있고, 박물관에서는 설문대할망 동영상이 상영되기도 하며, 홈페이지에서도 이 이야기기 소개된다. '신화의 정원'에서는 '설문대할망'을 언어로, 영상으로 전승한다. 이 표지판들에서 소개되는 대표적인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한라산 영실에 전해 내려오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여기에 설치된 거석들은 오백장군을 상징하고 신화 속의 설문대할망 이미지로 형상화된 제주돌박물관 진입부로 현실세계와 신화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이 통로를 지나는 동안 설문대할망이 자식들을 위해 거대한 육신을 죽솥에 던져버린 지극한 모성애와 어머니를 그리는 오백아들들의 한 맺힌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전설의 통로 표지판>

>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 이 할머니는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불들이 자기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龍淵)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보니 물이 발들에 닿았고,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흥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는 것이다.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미쳐 몰랐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 표지판>

> 한라산 영실에 전해 오는 전설 속의 설문대할망은 키가 무려 49,000m나 되는 거녀(巨女)였다고 한다. 전설은 설문대할망의 죽음을 두 가지 형태로 전하고 있다. 하나는 자식을 위해 끓이던 '죽솥'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키가 큰 걸 자랑하다가 '물장오리'라는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것

이다. 지극한 모성애와 인간적 약점의 양면성을 함께 말해주는 이야기라 할 것이다. 박물관 옥상에 설계된 '하늘연못'은 설문대할망 전설 속의 '죽솥'과 '물장오리'를 상징적으로 디자인한 원형무대이다. 지름 40m, 둘레 125m로, 연극, 무용, 연주회 등을 위한 수상무대(水上舞臺)라는 전위적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하늘연못 표지판>

오백장군: 한라산 서남쪽 산 중턱에 '영실'이란 명승지가 있다. 여기에 기암절벽들이 하늘높이 솟아 있는데 이 바위들을 가리켜 오백나한(五百羅漢) 또는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신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설문대할망이 아들 오백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 어느 해 몹시 흉년이 들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백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죽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정말 죽 맛이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막내 동생이 죽을 먹으려고 솥을 젓다가 큰 뼈다귀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됐다. 막내는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을 먹어치운 형제들과는 못살겠다며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서 바위가 되었다. 이것을 본 형들도 여기저기 늘어서서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를 그리며 한없이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이것이 오백장군이다. (故김영돈 • 민속학자) <오백장군 석상 표지판>

관광지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선택을 동반한다.[25] 다양한 설문대할망

25) 관광지의 스토리텔링 단계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가진다.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탐색하기', 모인 자료들을 목적과 연관하여 선별하는 '분류하기', 스토리를 가공하는 '다듬기', 스토리 전달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여주기', 스토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공유하기'. 윤현호 외 2인, 「관광지 스토리텔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관광연구』 26권 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278쪽. 이 가운데 분류하기 단계는 자료들에 대한 선택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야기 가운데 이 공원에서 선택한 것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문대할망과 물장오리'이다. 이들은 비극적 행위 유형으로, 신화라기보다는 전설적 성격을 가진다. 조현설은 "설문대할망 전승의 특징은 개양할미를 포함한 마고할미계 신화의 다른 유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비극성에 있다. 설문대할망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익사하는 여신이고 오백장군 전설을 통해 살필 수 있듯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비극성이 두드러지는 여신이다."라고 하였다.[26] 앞서 언급했듯 돌문화공원은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모토로 만들어진 곳이다. 설문대할망이 연못과 죽솥에 '빠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비극성은 야심찬 기획과 어울리기 힘들어 보인다.

먼저, 이 두 가지 비극적 행위 유형 가운데에서 이 공원의 핵심 테마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임을 언급하도록 하자. '설문대할망과 물장오리'는 연못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었는데, 이 공원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지표물은 물장오리를 상징한 연못과 하늘연못 정도이며, 하늘연못 표지판에서도 이 이야기는 짧게 거론된다. 반면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은 여러 표지판에서 복제되면서 반복적으로 전승된다. '오백장군 석상' 표지판은 오백장군의 돌형상이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데 그 표지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죽솥을 상징한 연못'의 표지판도 이와 유사하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은 '신화의 정원'의 핵심적 스토리이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는 '설문대할망'의 다른 유형들과 차별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비극적 행위 유형에 속한다. 설문대할망이 오백장군을 낳았다는 것은 할망의 창조성이 출산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창조성은 직접 드러나기 보다는 이미 성장한 오백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이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은 빠져 죽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아들들의 조력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아들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죽을 쑤고 죽통에 빠져 죽음으로써

26) 조현설, 앞의 논문, 171쪽.

먹을 것을 제공한다. 창조적 행위 유형이나 유희적 행위 유형에서 할망이 행위 주체로 주되게 기능하는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 이 이야기는 영실에 있는 오백장군의 석상을 증거물로 한다는 점에서 전설의 특징을 가진다. 이 석상은 오백장군의 지표 혹은 도상으로 기능한다. 다른 이야기 유형에서 설문대할망은 지형물과 도상적, 환유적, 상징적으로 직접적 관계를 가지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상정하기 힘들다.

전승의 역사로 보자면,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은 함께 전승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전승되기도 하였다. 여러 논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한 유형의 이야기 속에 엮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27] '설문대할망'이 아니라 '어떤 어머니'나 '한 할머니'가 오백장군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 아니라, '설문대하르방'과 '오백장군' 이야기라고 할 만한 것(여기에서는 죽솥에 빠져 죽는 이가 설문대하르방이다)도 있다. 돌문화공원에서는 '설문대할망'을 오백장군의 어머니로 전제하고 스토리텔링 한다. (이는 목석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돌문화공원에서는 이들을 모자 관계로 고정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에 사소하지만 중요한 변형을 가하기도 하였다. 설문대할망의 죽음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전설의 통로 표지판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자식들을 위해 거대한 육신을 죽솥에 던져버"렸다고 전한다.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의도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스스로 빠져 들어간 돌가마솥에서 사랑의 죽(粥)이 되고, 그것을 먹은 아들들은 오백장군 바위가

27) 1959년 안덕면 화순리 문인길에게서 채록되어 진성기의 『제주도설화집』에 수록된 이야기에서는 '한 할머니'가 50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 '오백장군'으로 전승된다. 1961년 한경면 판포리 변인선이 제보한 장주근의 『한국의 신화』에는 '설문대할망'이 오백장군을 낳았다고 할 뿐 오백장군과 관련되는 이후 이야기는 없었다. 또한 진성기의 1968년 출간본에서는 일설을 들어, 죽솥에 빠져 죽은 자가 오백장군의 아버지라고도 하였다. 설문대할망 자신은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다. 현용준의 1976년 출간본은 '어떤 어머니'가 오백장군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오백장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DB. 현용준은 그의 저서에서 진성기의 자료를 들면서 오백장군의 어머니가 '어떤 할머니'에서 '설문대할망'으로 바뀐 것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현승환, 앞의 논문, 93쪽.

되었다는 이야기"28)를 전한다. 설문대할망이 죽에 빠지는 것이 실수였음이 은폐되거나, 아들들을 위한 고의적 희생이었음이 강조된다.

돌문화공원에서 재구성된 설문대할망 스토리에는 고정된 부분, 변형된 부분 외에 창조된 부분도 있다. 돌문화공원 입구에는 이 공원을 상징하는 도상이 있다. 쪽진 머리의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스토리를 제주돌박물관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뒷부분에, 이들 아들들의 혼이 새가 되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첨부한 것이다. 새가 된 아들들은 할머니에게 날아오는데 그 가운데 막내가 할머니의 머리 위에 앉는다. (이 모습을 형상화한 도상이 바로 이 공원의 상징물이다.)



<사진1> 돌문화 공원의 상징물인 설문대할망과 새가 된 막내 아들

돌문화공원은 비극적 행위 유형의 '설문대할망'을 선택했지만 그 스토리텔링에서 비극성은 희석되거나 승화된다. 설문대할망이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사건이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비극적 사건은 모성을 보여주

28) 홈페이지의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의도 중에서. 이 전시관은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 전시관은 돌문화공원 조성의 핵심시설이 될 예정이다.

는 사건이 된다. 비극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모성성에 초점이 주어진다. 이 모성은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는 극단적 성격을 가진다. 이 극단성은 "지극한 모성" 혹은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된다.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거쳐 설문대할망은 아들의 어머니로, 모성성을 가진 어머니로 재탄생한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은 이 공원에서 비극적 전설이 아니라 신성한 가족신화로 재탄생한다.

3. 돌형상의 도상성과 배치

3.1. 탐라목석원에서 일상의 구체화

돌문화공원은 탐라목석원의 전시물을 재전시한 곳이기도 하다. 탐라목석원에서는 유사한 돌문화형상들이 돌문화공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시되었다. 이에 대한 탐색은 돌문화공원의 전사(前史)를 알아보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돌형상들을 다른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탐색은 현재 돌문화공원의 돌형상이 전달하는 스토리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탐라목석원은 1971년 개원하고 2009년에 폐원하였다. 이곳은 한때 연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관광명소였으나 2006년에 돌문화공원이 개장하면서 관광객이 감소했다. 목석원은 2009년 8월에 6천여 점에 달하는 전시물을 돌문화공원에 기증하면서 막을 내렸다. 탐라목석원은 돌문화공원의 전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돌을 통해 이야기가 생성되고 이야기를 통해 돌이 해석되는 대표적 장소이기도 하였다.

목석원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의 주 소장품과 전시물은 나무와 돌이었다. 특히 여기에는 사람 모양의 돌 500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부분 196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모은 자연석이었다. 각각의 돌들은 이야기에 걸맞은 형태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된다. 돌이 어떻게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도상으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도상을 통해 직접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자연석들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 돌들을 어떤 구체적 형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돌형상을 기표라고 할 때 그 지시물은 이야기가 된다. 형상과 지시물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목석원에서는 이 관계를 일대일로 고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한 시도는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관광객들은 "내용에 맞는 돌들을 가져다 놓았다."고 여긴다. 고뇌하는 장면에서는 고뇌하는 표정의 돌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돌의 형상이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돌형상이라는 기표와 이야기라는 지시물이 맺는 관계는 복잡하다. 기표를 통해 이야기를 구상하고 다시 이야기를 통해 기표들을 선택하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상이 이야기를 드러내는 양상은 결정론적이거나 환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론적이거나 생성론적인 것이다.[29]

돌형상에 부여된 스토리는 유동적이고 다기적이었을 해석을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돌형상이 가진 스토리는 관람객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된다. 목석원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기표와 지시물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고착화 되는 것이다. 목석원에서는 그렇게 고착화된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갑돌이의 일생' 등 경쟁하는 몇 가지 스토리가 그것이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갑돌이의 일생'으로, 갑돌이와 석순이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 벌로 하느님에게 충격적인 꿈을 선사받고 깨달음을 얻은 후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전시된 돌형상은 '결혼하다', '아이를 낳다', '바람 피우다' 등 구

29) 송효섭, 『신화의 질서: 도성기호학적 탐구』, 문학과지성사, 2012, 57쪽.




<사진 2, 3> 탐라목석원의 갑돌이 일생

체적인 행위를 형상화한다. 돌형상에서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이야기 사건의 한 부분에서 끌어온 것임을 말한다. '갑돌이 일생'에서 '결혼한다'는 행위는 두 개의 사람 모양 돌이 나란히 서 있고 앞에 다른 돌이 서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한 사람은 주례이며 두 사람은 갑순이와 석순이가 되는 셈이다. 주례를 통해 결혼을 지시하는 이러한 원리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에 기반 한다.[30] 이러한 제유의 원리를 수시로 활용하면서 목석원에서는 결혼-출산-바람-꿈-반성-행복 등으로 구성된 직선적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기획 의도에 따르면, 이 스토리는 일상을 소재로 "현실과 이상은 둘이면서 하나"[31]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고안되었다.

목석원에서는 '갑돌이의 일생'이 가장 인기 있었지만 여기에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형상도 전시되어 있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아들의 '전설'을 형상화하기 위해 목석원에서는 몇 가지 노력을 하였다. 오백 개의 위령탑을 쌓기도 하고 오백아들의 슬픈 표정을 돌에서 찾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였으며, 흙을 빚어 이들 혼백(魂魄)을 토우를 만들었다.[32] 이는 이야기 등장인물에 감정과 개별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목석원에서는 오백장군의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이나 토우 등을 이용

30) 송효섭, 앞의 책, 153쪽.
31) 탐라목석원 표지판. http://blog.naver.com/ohse0317/10028438132
32) http://blog.naver.com/samboo77/140042938696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인공적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도상성은 '갑돌이의 일생'이 만들어낸 자연적 도상성과 그 효과가 달랐다. 한때 갑돌이의 머리가 도난당하는 바람에 현상금을 걸고 찾은 적이 있다.[33] 갑돌이와 석순이의 두상석은 대체가 불가능할 만큼 정교했다. '갑돌이의 일생'에서는 사람과의 도상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갑돌이의 일생'에서 대부분의 관객들은 표지판을 보기보다는[34]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스토리를 습득했다. 이 표지판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과 이상에 대한 보편적이며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구체적 돌형상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해설사의 설명에 의존해야 한다. '갑돌이의 일생'은 행위와의 도상성이 높기 때문에 해설사들은 각 장면의 스토리를 비교적 쉽게 기억할 수 있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객들은 말해진 이야기와 돌형상 사이의 유사성에 놀라곤 했다. 이렇게 전승된 '갑돌이의 일생'에 대해서 해설사들은 표지판의 철학적 메시지와는 다른 개인적 소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35] '갑돌이의 일생'은 구술로 전승되는 스토리로, 해설사인 화자는 구체적 형상을 토대로 비교적 자유롭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3.2. 돌문화공원에서 모성의 신성화

목석원의 주된 전시물이었던 '갑돌이의 일생'을 구성하는 돌형상들은 지금도 돌문화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공원에는 두상석(사람 머리 모양의 돌) 야외 전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형상과 함께 '갑돌이의 일생' 중 인물상 부분이 전시되어 있다. '갑돌이의 일

33) 1984년에 갑돌이 머리를 도난당했다가 1987년에 되찾았다. <탐라목석원>, 『두산백과』, DB.

34) 이 표지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기에 갑돌이 일생에 대한 구체적 스토리는 제시되지 않는다.

35) http://blog.naver.com/ohse0317/10028438132. 여기에서 해설사는 "바람 피우시면 안됩니다."라는 농담으로 '갑돌이 일생'에 의미를 부여한다.

생'은 독립된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광대한 공원의 전시물 가운데 주변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전시물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36] 목석원에서는 '갑돌이의 일생'이 주를 이루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이 부수적인 전시물이었지만 돌문화공원에서는 그 위계가 바뀐 것이다.

돌문화공원에는 여러 볼거리가 있다. 현대적 건축물인 제주돌박물관과 오백장군 갤러리는 대표적인 인공물이다. 곶자왈이라는 배경은 대표적인 자연물인데, 돌, 나무, 넝쿨들이 엉켜있는 이곳은 돌문화공원 대지의 70%를 차지한다. 이런 자연물과 인공물 사이에 돌형상이 구석구석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다. 돌형상은 거대하며 무수하지만 자연의 여백은 훨씬 광활하다. 이들은 목석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행위소의 역할을 한다.

돌문화공원의 돌형상 가운데에는 두상석[37]이 다수 있다. 사람 머리 모양의 이 수석은, 사람 몸통 모양의 돌과 만나야 그 형상을 완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창작자의 역할은 질감, 크기, 모양을 고려하면서 두 개의 자연 상태 돌을 결합하는 것이다. 돌문화공원에는 자연 상태에서 가져온 사람 모양의 석상도 있다. 오백장군 형상은 인공적 자연석(두상석) 혹은 자연석으로 이루어진다. 두 개의 돌로 된 사람의 형상도 있고, 하나의 돌로 된 사람의 형상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오백장군 석상 가운데에는 도상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있다.

목석원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자연석 혹은 인공적 자연석을 가지고 구체적 행위를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문화공원의 오백장군 석상에는 역동적 행위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돌형상들은

---

36) 이 돌형상들은 3코스에 있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이 문을 열면 거기에 전시될 수도 있다. 이곳은 아직 공사중이다.

37) 이보다 더 많은 가공을 한 돌하르방이나 동자석도 있다. 돌조각품인 이들 형상은 돌을 이용한 인공물로, 자연적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형상 역시 공원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야기와 돌형상의 관계를 탐색하는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돌로의 변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신 후 돌로 선 상태를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오백장군 존재의 형태론적 배치가 강조된다.[38] 각양각색의 거대한 석상들이 광활한 배경 아래 늘어서 있는 모습은 기하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목석원의 두상석들이 각기 다른 배경에 각기 다른 인물상과 함께 전시되면서 구체성을 획득했던 것과는 다르다. 돌문화공원에서 무수한 석상들의 나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석이건, 해석이 필요하다. 이들 석상들에 대한 해석을 제안하는 것은 돌문화공원의 기획 의도나 신화 스토리를 설명하는 표지판이다. 돌문화공원에도 해설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곳곳에 표지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이 표지판을 통해 이야기와 형상의 관계를 파악한다.

오백장군의 형상이, 어떤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돌문화공원이라는 맥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설화를 기술하는 표지판이 돌형상과 함께 배치되어 있기에 이 돌들은 오백장군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돌들은 복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백장군을 지시하기도 한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여기저기 우뚝 서 있는 수 백 개의 돌들은 설문대할망 아들들의 숫자와 유사해 보인다.

돌문화공원에서 오백장군 돌형상은 어디에서나 보이는 반면 설문대할망 돌형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백장군 석상이 돌문화공원에서 복수적으로 나타난다면 할망의 석상은 단수로 드러난다. 행위 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돌이 설문대할망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맥락이 필요하다. 설문대할망의 돌형상은 오백장군의 곁에 위치함으로써 할망을 표상하는 것이 된다. 오백장군의 형상은 복수적 돌이 배치되면서, 할망의 형상은 오백장군 형상 주변에 배치되면서 의도된 의미작용을 한다.

38) 송효섭, 『신화의 질서』, 문학과지성사, 2012, 218쪽.



<사진4> 돌문화공원의 오백장군



<사진5> 돌문화공원 '어머니 방'의 용암석

설문대할망 석상의 유표성은 그것이 단수로 드러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방 안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간에서 동선은 언어의 통사적 관계에 해당한다. 오백장군의 석상들 사이를 지나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바로 설문대할망의 석상이 전시된 '어머니의 방'이다.[39] 이러한 동선은 설문대할망 석상을 '신화의 정원'의 결론 격으로 만든다. '어머니의 방'은 돌로 쌓은 방인데 실내 유리덮개 안에 설문대할망 석상이 전시되어 있다. 오백장군 석상은 노상에 드러나 있다면 이 돌형상은 방에, 숨어 있어서 더 주목받는다.

'어머니의 방'의 석상은 자연석, 그 중에서도 용암석이다.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 돌형상은 오백장군 돌형상과 달리 작지만 정교하다. 이 정교한 돌형상은 행위를 표상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돌문화공원에서 오백장군 형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석상은 존재적 유형이지만 이 돌형상은 거의 유일하게 행위적 유형이다.[40] 돌문화공원에서 할망은 단수적이며, 숨어있으며, 행위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렇게 유표화를 거듭한 결과, 설문대할망은 어머니로, "모성의 화신"[41]으로 형상화된다.

---

39) 설문대할망 돌형상이 드물기는 하지만 설문대할망 돌형상으로 추측되는 돌형상은 있다.

40) 그 외 전설의 통로 왼쪽에 있는 모자상도 설문대할망 돌형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아이를 안고 있는 행위를 표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41) '어머니의 방' 표지판에서는 이 용암석이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은 모성애의 화신이 된 설문대할망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굿맨은 대상을 재현할 때 우리가 그러한 해석 또는 번역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달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도상에서 재현되는 것은 반드시 대상과 닮은 것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다.[42] 굿맨에 따르면, 돌형상은 이야기를 전달할 뿐 아니라 이야기를 창조한다. 인공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오백장군의 석상들은 크고 작고 길고 짧은 다양한 형태일 뿐 아니라 색감이나 질감 역시 각양각색이다. 저마다 다른 오백장군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 돌들은 망연자실해하는 아들들의 상태를 도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돌형상들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오백아들이 돌이 되었다."는, 요약적 진술을 시각화하는데, 붙박힌 돌들은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아들들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돌문화공원의 오백장군 석상들은 아들들이 가졌을 한의 크기와 정도를 육화한다. 그 결과 이야기에는 없던 오백장군의 복수적 다양성과 물질화된 거대한 감정이 드러난다.

돌문화공원에서 신화는 단성적이다. 신화를 설명하는 표지판은 복제된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일관된 메시지를 중복해서 전하는 것이다. 반면 돌형상은 다성적이다. 각양각색의 다성적인 돌형상은 표지판으로 단일하게 전승되는 단성적 신화를 보완한다. 돌형상이 보완하는 지점은 다양하고 개별화된 "어머니"로서 설문대할망, 크고 깊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설문대할망이다.

이 설문대할망의 모성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다. 이 모성의 형상은 돌문화공원에서 비밀스럽고도 희소한 것으로 배치된다.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 돌형상은, 아들들에게 자신을 먹인 어머니의 극단적 희생정신과 상호작용한다. 이 유일하면서도 희생적인 어머니는 신성한 모

42) 예수의 성상을 만든 사람이 예수를 실제로 친견하고 만든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이 깃든 성상이 완성된 것이다. 굿맨의 논의와 예수의 사례는 모두 송효섭, 앞의 책, 40쪽 참조.

성성을 강화한다. 돌문화공원에서 모성성은 고귀하고 진지한 것으로 사유된다.

4. 돌문화공원에서 실현된 신화와 자연

장소의 경계 너머는 물리적 공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43] 본고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 유형을 살피고, 목석원의 돌형상을 살핀 것은 돌문화공원 너머를 상상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 유형은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 신화가 만들어지는 배경 혹은 콘텍스트이다. 마찬가지로 탐라목석원은 돌문화공원 돌형상의 배경 혹은 콘텍스트로 기능한다.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할 때 '설문대할망'의 여러 유형은 하나의 참조 대상이었을 것이다. 돌문화공원에서 돌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탐라목석원 역시 유사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 유형이나 탐라목석원의 돌형상을 살핀 것은, 돌문화공원이 지금 모습으로 있게 된 배경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돌문화공원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세계를 상정할 때 우리는 가능세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44] 가능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

43) 장소의 정체성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논쟁적이며 복수형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어떤 장소에 경계를 두르고 그 경계 너머와 대립되는 것으로 그 장소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써 그 장소의 특수성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경계 '너머'와의 연계와 상호연관성의 조합의 특수성을 통해 장소의 특수성이 (일부) 구성된다. 장소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장소를 개방적이고 다공적인(porous) 것으로 본다.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15, 46쪽.

44) 가능세계는 원래 라이프니츠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가능세계들의 무한성은 신의 마음 안에서 사고들로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든 가능세계들 중에서 단 하나가 실제적이다. 신의 마음에 의해 선택되어 실현된 이러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며, 우리가 실재라고 부르는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니

서 실현되어 나타난 세계를 유일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현된 돌문화공원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이 집합된 세계, 가능세계를 가진다. 잠재된 형태와 실현된 형태를, 가능세계와 공원세계를 비교한 것은 다른 모습으로서 돌문화공원이 가지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설문대할망' 설화 유형 가운데에는 할망의 존재에 초점을 둔 유형과 행위에 초점을 둔 유형이 공존한다. 설문대할망의 창조적 행위는 일상 영역에서 시작된다. 강조했듯이, 설문대할망은 일상을 통해 창조를 행한다. 탐라목석원의 경우에서 보았듯, 돌형상을 통해 일상과 구체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스토리텔링에서는 할망의 창조적 행위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이곳의 돌형상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행위는 아이를 안는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 행위에서는 일상성이 탈각된다. 노동과 일상의 제거는 궁극적으로는 창조적 행위의 제거이다. 그 결과 설문대할망은 정적이며 모성적 존재로 재탄생한다. 창조하기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에 위대해진다.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의 어머니로 소환된다.45)

돌문화공원은 가능세계와 다르지만, 현실세계와도 다르다. 현실세계는 공원을 둘러싼 모든 세계를 포괄한다.46) 현실세계, 제주도 실제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추론은 돌문화공원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다르다.

츠의 개념은 20세기 들어 필연성과 가능성의 양상적 작용소를 위한 의미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데 편리한 도구가 된다. 송효섭, 「도깨비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15집, 한국기호학회, 2004, 173쪽.

45)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서사와 이들의 돌형상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신화의 정원'에서는 '신화'에 대한 독특한 사유를 생성하기도 한다. 돌문화공원은 비극을 전경화하지 않지만, 진지하며 성스러운 곳이다. 그 진지함과 성스러움은 모성성을 사유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나아가 신화를 사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46) 현실세계는 공원이 만들어진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모든 시기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사회적 맥락 등을 함축한다. 그것은 거의 무한정한 것처럼 보이며, 모두 기술될 수 없고 추론되는 한에서만 기술이 가능하다.

제주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가사 노동만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통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47] '강인한 제주 여성'은 이들의 현실을 재현하는 대표적 담론이다.[48] 현실세계에서 추론되는, 노동하고 창조하는 제주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는 돌문화공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돌문화공원은 제주의 현실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이 아니라, 돌문화공원의 기획의도가 지향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만 제주답다.

돌문화공원에서 나타난 설문대할망의 신화와 형상은 고유한 '전통'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보편적인 모성성의 허구에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성성은 돌문화공원의 방문객들에게 대표적인 장소감을 선사한다. 이들은 '신화의 정원'에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감정적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거나 먹먹해졌다는 등의 후기를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감은 이곳을 기획한 장소의 정신이 개인적으로 구현된 것이기도 하다. 모성에 대한 감응은 이곳에 부여된 장소의 정신이기도 하고, 관람객들이 인지하는 장소감이기도 하다. 돌문화공원에서 장소감과 장소의 정신은 모성성을 매개로 일치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돌문화공원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이러한 허구로는 제주만의 지역성을 살리기 힘들다.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돌문화공원은 천혜의 자연 환경, 오랜 세월 수집된 다량의 전시물, 친환경적인 조형과 건축물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돌문화공원이 아직 미완이라는 사실이다. 2020년까지 3코스에 설문대할망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전시관에서는 '설문대할망' 형상을 통해 제주다움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희

47)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5-41쪽. 정진희는 제주 남성은 가정에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주력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고 하였다.

48) 이러한 담론은 제주 여성을 도구화하고 타자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김영순, 「'강인한 제주 여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3, 1-85쪽.

극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성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근한, 게으르면서도 창조적인 '설문대할망' 형상을 어느 하나로 재단하지 않고 고정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돌문화공원에서는 2006년부터 설문대할망제를 지냈다. 여기에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있다.[49] 본고는 여성이 소환되는 장소에 초점을 두면서, 장소에 고정된 형상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작용을 통해 설문대할망의 소환 방식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테마공원에서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역시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문고, 1996.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2. 단행본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40쪽.

송효섭, 『신화의 질서: 도성기호학적 탐구』, 문학과지성사, 2012, 57-153쪽.

조현설,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사, 2006, 148-159쪽.

_____,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11-140쪽.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15, 44-45쪽.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심승희 · 구동회 역, 대윤, 2007, 293쪽.

<탐라목석원>, 『두산백과』, DB.

49) 고유문(告由文)과 문무병이 창작한 <설문대할망제 본풀이>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희, 위의 논문, 229~254쪽.

3. 논문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0, 223-260쪽.

김영순, 「'강인한 제주 여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3, 1-85쪽.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9, 1-90쪽.

박지선,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체계」, 학술발표자료, 한국프랑스학회 2007, 177-190쪽.

안승범 • 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기획 연구」, 『인문콘텐츠』 17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279-303쪽.

윤현호 외 2인, 「관광지 스토리텔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관광연구』 26권 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267-286쪽.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호, 제주대, 1989, 53-78쪽.

이창식, 「설문대할망 관련 전승물의 가치와 활용」, 『온지논총』 37권, 온지학회, 2013, 65-98쪽.

_____,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30권, 온지학회, 2012, 7-45쪽.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9, 229-254쪽.

조현설, 「마고할미 • 개양할미 •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140-173쪽.

현승환,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 『영주어문학회지』 24집, 영주어문학회, 2012, 91-118쪽.

황용섭, 「사건과 이미지에 의한 전일적 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33쪽.

Abstract

The recall of 'Sulmundaehalmang' in Jeju Stone Park

Ryu, Jeon-gwol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ales of Seolmundae Halmang (Granddmother Seolmundae) and stone figures of the character in Garden of Myth, the first course of Jeju Stone Park. It aim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sense of place and sense of spirit which the Park offers to visitor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 divide the elements of the park into two components, stories and stone figures or language and nature and exam each contexts. The contexts of Seolmundae Halmang stories are various type of the tales and the contexts of Seolmundae Halmang stone figures are Tamramoksukwon. This paper will develope possible alternative methods of making the Garden of Myth in Jeju Stone Park.

First, the Seolmundae Halmang tales can be classified into 'being' type and 'doing' type (and this type is divided into 'creative' and 'tragic' dong). The stories have mythical, legendary and playful characteristics. Jeju Stone Park selected the tragic stories among the types for the garden. The Park inherited the stone figures from Tamramoksukwon where the figures had delivered concrete and daily stories which are not found in the Jeju Stone Park. As the result, the Seolmundae Halmang character has the images of Grandmother without the creativity of daily life in Garden of Myth.

Visitors can be moved by Halmang's sincere maternity. The

maternity is sense of spirit which is provided by the producer of the park and sense of place which visitors can catch. But I think the fictions of maternity cannot reveal the peculiarity of Jeju island. The local identity can be fulfilled by representing multifaceted features of Seolmundae Halmang.

Key words : Jeju Stone Park, Seolmundae-Halmang Tale, myth, stone figure, Tamramoksukwon, maternity, iconicity.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